

LG-파스퇴르, 신약 후보물질 연구협력

LG생명과학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심순환계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제품화를 위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월14일 밝혔다.

따라서 양사는 6월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조인식을 갖을 예정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약물 후보 물질을 검색하는 기반기술을, LG생명과학은 기반기술로 검색된 약물 후보 물질에 대한 평가와 제품화를 위한 제반 기술을 각각 제공하고 연구인력과 비용은 양사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사는 새로 개발하는 신약의 특허와 권리는 공동 소유하며, 앞으로 2년 안에 LG-한국파스퇴르 신약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동북아 바이오 연구개발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부가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와 손잡고 2004년 4월 국내에 유치했다.

<화학저널 2007/06/14>